

# “ 생명사랑의 기본 위에서

# 이과서 쓰는 환경해저 필터 ”

낙동강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경오염사고의 역사를 안고 있는 유명한(?) 곳이다.

여러 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강의 특성상 지역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수질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낙동강환경관리청. 이곳에 환경오염사고의 역사적인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채 1호로 손희만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이 신임청장으로 취임했다.

대부분의 환경관계자들이 꺼려하는 곳. 환경관련 부서 중 가장 인기가 없는 곳인 이곳 낙동강환경관리청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립해 가는 손희만 청장을 경남협의회 황수남 회장, 1대 하중호, 2대 문종욱 회장이 만나 보았다. [편집자 주]



▶**황수남 회장** :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낙동강환경관리청의 간단한 소개 및 금년도 중점 추진사업은 무엇입니까?

▷**손희만 청장** : 낙동강환경관리청은 80. 7. 1 보사부령 제 647호에 의거 환경청 소속 「부산환경측정관리사무소」로 처음 문을 연 이후 90. 1. 3에 환경청의 환경처 발족과 같이 하여 「부산지방환경청」으로 확대개편 되었고, 94. 5. 4에는 6개 지방환경청이 4대강 수계별 환경관리청으로 개편됨에 따라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 개칭(1국 5과 2출장소, 정원 115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청은 낙동강수질을 총괄 관리하면서 부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남해, 하동 제외) 지역내 국가 및 지방공단의 대기 수질배출업소 환경관리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를 비롯하여 관할 구역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우수생태계 보호 및 관리,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및 상수원관리, 환경오염측정망 운영 등 주요환경사안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환경과 경제를 상충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던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환경관리 수단을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단내 발생 환경부산물과 잉여에너지 등을 공단내 기업간 재활용 공유를 통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가칭 『생태공단』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환경산업체의 지원대책 등도 강구·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와 정수장운영관리실태 평가를 환경단체대표,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전자감시 시스템 등을 검토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과학화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

는 대기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 울산지역의 경우는 악취저감대책, 부산지역의 경우는 먼지저감대책 등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므로써 최소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며, 오존경보제 운영, 천연가스보급 확대 지원 및 대기이동차량 운영 등을 통하여 대도시 체감대기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지역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성 검토를 더욱 내실화하고 우포늪, 홍도 등 우수생태계 보전지역의 관리를 강화하며,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야생조수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생물자원보전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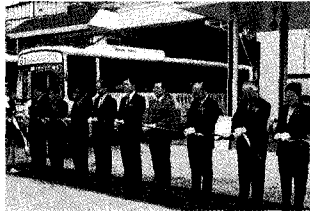
다섯번째로, 폐기물의 처리증명제 운영으로 폐기물처리 경로를 실시간 추적조사 하므로써 폐기물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법처리를 근절하고 유해화학물질 배출원의 전문관리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선진화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낙동강 환경관리를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하여 낙동강에 관한 모든 환경정보를 포함하는 『낙동강권역 환경지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존의 환경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자료를 수집하여 명실공히 환경정보의 메카 구실을 할 수 있는 『종합환경홍보자료실』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국제경기 개최도시와 배출업소 합동단속 및 환경질 합동평가단을 운영하여 환경친화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언론매체와 적극 협력하여 환경홍보도 활성화 하므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호 회장** : 환경부에서 교통공해 평가분석, 자연정책 분야를 담당하시다가 공채로 제10대 낙동강환경관리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민간인들에게는 호응받는 공채 1기 이신데 재임기간 중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손희만 청장** : 국민들이 바라는 공채로 이곳에 오다보니



조금의 부담은 안고 있지만 임기동안 환경부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인들에게 부담없는 청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업무와 자연환경보전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엇보다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과 물관리 종합대책(오염총량관리제 도입, 환경기초시설대폭확충, 물이용부담금 부과 등)의 추진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환경정책의 지방화달성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지금의 손발이 맞지 않는 환경행정 여건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은 자치환경행정 구현이 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문종욱 회장 : 환경정책의 지방화는 과거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안이 있는지요?

▷손희만 청장 : 맞습니다. 현실정에서는 상당부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향후 환경행정의 지방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의 난개발 등으로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제재가 중앙정부에 이루어지고 있어 자치단체의 개발논리에 밀려 자연이 훼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지방 환경부서의 강화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단체장과 주민이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의 많은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자치행정의 구현은 우리보다 선진국입니다. 환경전문가들이 지역에 배치되어 중앙정부와 교류를 통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발과 환경문제 모두를 만족시키는 행정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의 역량강화를 통해 환경관리의 지도점검부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황수남 회장 : 부임하시고 7여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을텐데 업무수행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희만 청장 :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낙동강과 떨어진 창

원에 우리 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청장의 권한이 매우 적습니다. 예산배분권한, 사업예산편성권한, 통제권한, 인사권한 등 많은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부처와의 근무조건 차이로 직원들의 사기저하, 자치단체와의 마찰 등 많은 일을 추진하기에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중호 회장** :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최근 지역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업장 스스로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행하면서의 문제점과 결과는 어떠한지요?

▷**손희만 청장** :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기업 스스로 자율적 환경관리를 도모하므로써, 환경오염 저감과 기업경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제도를 2000년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우리청에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 울산지역의 총 149개 배출업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계약체결 후 1년이 경과한 협약업소에 대하여 자체진단을 실시한 결과, 평가대상의 91%인 63개업소가 당초 협약대로 이행하였으며 6개업소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9개업소가 시설개선을 위하여 총 46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악취 등의 시민체감 환경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초기단계로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자와 환경관리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문종욱 회장** : 최근 갈수기로 인한 낙동강수계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보시지요?

▷**손희만 청장** : 낙동강하류의 수질은 환경기초시설 신증

설 등 지속적인 수질개선 사업으로 '95년을 기점으로 수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갈수기인 1월부터 4월까지의 하천유지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오염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갈수기에는 상수원오염원 특별단속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갈수기 물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8년에는 갈수기에도 낙동강하류지역 수질이 II급수로 개선되어 보다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수남 회장**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상·하류 측의 참여한 대립으로 지연되고 있어 수질오염도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고견과 바람직한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손희만 청장** : 21세기 세계화시대에는 지식정보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자신의 주장만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경우 문제해결 내지는 존립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 지역, 단체인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양보하므로써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 문제도 그동안 상·하류간의 반복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환경단체 및 관계기관이 힘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을 '99.12.30에 확정된 바 있으며, 동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늦어도 금년 6월까지의 국회의결을 거쳐 제정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대책과 제도가 국민의 협조속에 실천으로 옮겨질 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낙동강 수질개선은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중호 회장** : 환경오염업소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단속보다 기술지원과 지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손희만 청장 : 단속과 처벌에 의한 규제위주의 환경행정은 그 효과가 강력하고 즉시적이긴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규정을 준수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선의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지원은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한 『에코-2 프로젝트』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므로 우리청에서도 대학교수,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영세업체와 기술지원 요청회사에 대하여 월 1회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지원 등의 적극적인 환경관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수남 회장 : 전국 132개 대학 환경관련학과 졸업생이 매년 2만여명이 배출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특례법에 의해 법정환경관리인제도가 완화되어 이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차세대 환경지침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도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손희만 청장 :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완화로 기업의 부담을 들어주므로써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환경관리인 선임자격을 완화하였으나, 환경에 관한 국제기준과 무역규제가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환경과 관련한 규제완하는 좀 더 엄격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인 선임요건의 완화에 따라 환경관련학문을 전공하고 관련 자격증을 구비한 우수인력의 취업기회가 줄어들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환경인 스스로도 기

존의 일자리에 한정하지 말고 세계시장과 겨룰 수 있는 환경신기술의 개발 및 관련산업의 개척으로 환경전문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환경산업(ET)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망하고 기술력이 있는 환경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30억원 규모의 『환경벤처펀드』도 지난 4월 30일에 출범한 바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종사하고자 환경학문을 전공한 많은 분들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취업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나,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점차 확대될 것이므로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실력배양에 정진하여 국가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황수남 회장 : 청장님의 환경철학 내지 공직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손희만 청장 : 환경보전은 생명사랑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이제까지 환경일을 해왔습니다. 환경보전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환경이 방대하지만 환경에 관심가지는 사람이 환경전문가라고 봅니다.

지금시대의 국민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공인은 몸도 관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종욱 회장 : 지금까지의 공직기간 중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손희만 청장 : 계획과장으로 재직시 91년 3월 폐놀사고가 났을 때 역할에 한계가 있었지만 다방면으로 노력해 해결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환경부 전체로나 저에게는 이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백서발간, 발왕산 개발저지 노력 등 또한 기억에 남으며, 특별법 제정(평가협회의 기관조정: 강원도)등은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황수남 회장 : 기업체의 환경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희만 청장 : 환경문제의 현장에 과감히 뛰어들어 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환경관리인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관한 논의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면서 기업경영자의 의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국가경제여건 등으로 인하여 환경담당부서는 여전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문제는 우리가 극복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여러분의 노력 하나 하나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환경관리인 여러분께서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

고 각자의 위치에서 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손희만(孫熿晩) 청장의 주요약력

- ◇ 직 급 : 부이사관
- ◇ 연 령 : 52년생(48세)
- ◇ 출생지 : 경북 성주
-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105-13 삼호빌라 301호
- ◇ 학 령 :
  - 경북고등학교 졸업
  - 육군사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졸업(국제환경법 전공)
- ◇ 주요경력
  - 환경부 교룡공해과장, 평가분석과장, 자연정책과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문역
  -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 현 낙동강환경관리청장
- ◇ 가족사항 : 김보순(48)여사와의 사이에 2남
- ◇ 취 미 : 테니스

### 그리고 남은 이야기

손희만 청장은 직원들에게 있어 참으로 따뜻한 수장이다. 지역주민들에게도 부담 없는 청장이다. 이로 인해 한발 다가가는 행정, 주민들이 다가오는 정책을 펼치고 싶어하는 손희만 청장.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인물이라면 카리스마가 느껴질 법 하지만 그를 가까이에서 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 소신있게 일을 추진하는 상사로 기억한다.

환경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 상하수도 국장, 감사, 낙동강환경관리청장 등이 개방형 임용으로 실시되고 있

는 가운데 낙동강환경관리청 공채 1기 청장인 그는 2년간 낙동강 환경지킴이의 선두에 서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업무의 경력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해 임기동안 혼혈을 쏟고 싶어한다. 그래서인지 요즘 수돗물 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운동과 사람을 좋아하는 손 청장. 그가 임기 2년 동안 만들어갈 환경보전에 지역주민들은 기대가 크다. 그런 만큼 시원하게 일관성 있는 지방환경정책을 펼쳐주길 바래본다.